

어린이도서관 선정 2021년 여름방학 권장도서 목록 및 해제

□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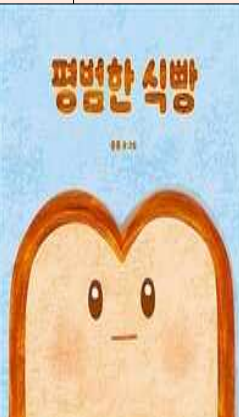

번호	권장 학년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1	유아	(내 방에 찾아온) 흙거인	박재욱 지음	위즈덤하우스
2	유아	네드가 간다! 신나는 햄스터 달리기 대회	김 할야드 지음	에듀애펙스
3	유아	다람쥐의 구름	조승혜 지음	북극곰
4	유아	문어 팬티	수지 시니어 글; 클레어 파월 그림	천개의바람
5	유아	사계절 목욕탕	김효정 지음	웅진주니어
6	유아	오늘은 진짜 진짜 혼자 잘 거야	홍수영 지음	웅진주니어
7	유아	우주 관람차	김성미 지음	책읽는곰
8	유아	코끼리가 부엌에 나타났다!	스므리티 프라사담 홀스 글; 엘라 옥스테드 그림	에듀애펙스
9	유아	키오스크	아네테 멜레세 지음	미래아이
10	유아	평범한 식빵	종종 지음	그린북
1	초등 1-2	기후 위기, 지구가 아파요!	데이비드 웨스트, 올리버 웨스트 지음	지구별어린이
2	초등 1-2	마스크 벗어도 돼?	교육을 위한 여성 과학자 모임 글; 마리온 톨로사 시스테레 그림	그레이트북스
3	초등 1-2	블랙홀이 뭐예요?	미네시게 신 글; 구라베 교코 그림	이성과감성
4	초등 1-2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에두아르다 리마 지음	봄나무
5	초등 1-2	쓰레기 괴물	에밀리 S. 스미스 글; 하이드 쿠퍼 스미스 그림	맛있는책
6	초등 1-2	쓰레기	니콜라스 데이 글; 톰 디스버리 그림	수피아어린이
7	초등 1-2	어서와! 장풍아	미소노 지음	책읽는곰
8	초등 1-2	우리는 물이야	이정모 글; 김진혁 그림	아이들은자연이다
9	초등 1-2	조개는 왜 껍데기가 있을까?	리사 스튜어트 글; 세라 S. 브래넌 그림	다섯수레
10	초등 1-2	지구온난화가 가져온 이상한 휴가	이윤민 글; 이윤민 그림	미세기






번호	권장 학년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1	초등 3-4	AI 명심보감	인정림, 강정화 글; 국민지 그림	휴먼어린이
2	초등 3-4	나는 태극기입니다: 태극기가 들려주는 우리 역사 이야기	임정은 글; 원혜진 그림	그레이트북스
3	초등 3-4	동물들의 세계사: 역사를 만든 위대한 50가지 동물 이야기	벤 러월 글; 새라 월시 그림	책과콩나무
4	초등 3-4	모두를 위한 집	티보 라싸 지음	원더박스
5	초등 3-4	상자 세상	윤여림 글; 이명하 그림	천개의바람
6	초등 3-4	세계 음식 한입에 털어 넣기	김인혜 글; 조윤주 그림	사계절
7	초등 3-4	아기곰이 보내는 편지	문중훈 지음	늘보의 섬
8	초등 3-4	엄마가 봄이었어요	나태주 글; 더여린 그림	문학세계사
9	초등 3-4	진화가 뭐예요?: 지구 생명체 탄생의 기원과 비밀	앤 루니 글; 넷 휴스 그림	빅북
10	초등 3-4	코로나 탐구 생활: 생활 습관에서 지구 환경까지	폴 드 리브롱, 최재천 글; 마르그리트 드 리브롱 그림	북멘토
1	초등 5-6	(움베르토 에코의) 지구를 위한 세 가지 이야기	움베르토 에코 글; 에우제니오 카르미 그림	꿈터
2	초등 5-6	13일의 단톡방	방미진 글; 국민지 그림	상상의집
3	초등 5-6	고민을 대신 전해 드립니다	김대조 글; 한지선 그림	주니어김영사
4	초등 5-6	뇌토피아	조은수 지음	뜨인돌어린이
5	초등 5-6	뉴스 좀 제대로 알고 싶다고?	강로사 글; 홍연시 그림	개암나무
6	초등 5-6	북극곰 고미의 환경 NGO 활동기	박하나 글; 신슬기 그림	중앙출판사
7	초등 5-6	선생님을 팝니다	카레 산토스 글; 안드레스 게레로 그림	베틀북
8	초등 5-6	순례 주택	유은실 지음	비룡소
9	초등 5-6	스쿨 오브 뮤직	메이리그 보옌, 레이철 보옌 글; 다니엘 프로스트 그림	길벗어린이
10	초등 5-6	쓸모가 없어졌다	윤미경 글; 조성흠 그림	국민서관

□ 해제


1	유아	(내 방에 찾아온) 흙거인	박재욱 지음	위즈덤하우스
	가족과 바다로 여행을 갔다 온 효주는 방에 들어와 보고 깜짝 놀란다. 방이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방을 본 엄마는 효주만 나무란다. 효주는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쓰레기를 모두 치우고 밖에 갖다 버린다. 피곤해서 자려는데 속상하게도 침대 밑에 덩그러니 남아 있는 강통 하나가 눈에 띈다. 효주는 창밖으로 강통을 던지고 그대로 잠에 든다. 그런데 밤사이 집채만 한 거인이 창문을 통해 강통을 다시 방에 던져 놓는 꿈을 꾸다. 이 그림책은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흙이, 지구가 아프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흙을 거인으로 의인화하여 아이들이 자연을 아끼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도록 돕는다.			
2	유아	네드가 간다! 신나는 햄스터 달리기 대회	김 할야드 지음	에듀앤티크
	네드는 햄스터 달리기 대회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햄스터들이 모이는 대망의 달리기 대회 날! 달리다가 길을 잃은 민달팽이를 지나치고, 배고픈 비둘기들도 지나친 네드는 커다란 구덩이에 빠진 누군가도 펄쩍 뛰어넘었다. 그러다 나뭇가지에 걸려 버린 네드. 위험에 빠진 그를 햄스터를 먹지 않는 여우가 구해준다. 곰곰이 생각에 빠진 네드는 계속 앞으로 달려가는 대신 되돌아가기로 마음먹는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멈춰 서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돕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림책으로, 아이들에게 경쟁을 넘어선 협동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다.			
3	유아	다람쥐의 구름	조승혜 지음	북극곰
	늘 비구름이 머리 위에 떠 있는 다람쥐가 있다. 해가 짹짹 비추는 날에도 다람쥐의 머리 위에는 비가 내린다. 어느 날, 동네를 걷다 토끼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다람쥐. 그런데 그만 다람쥐와 함께 비를 맞은 토끼가 감기에 걸리고 만다. 다람쥐가 지나간 자리마다 축축하게 젖어서 사람들이 앓을 수가 없어지기도 한다. 점점 우울해지는 다람쥐. 그의 앞에 생쥐가 나타난다. 우산을 선물해 주고 같이 우비를 입고 즐겁게 놀아주는 생쥐 덕분에 다람쥐는 비가 와도 즐겁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하루에도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슬프고 우울할 때도 있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내 옆에 있어 주는 소중한 사람들 덕분에 살아갈 수 있다. 우정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귀여운 그림책이다.			
4	유아	문어 팬티	수지 시니어 글; 클레어 파월 그림	천개의바람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문어에게는 팬티가 한 장도 없다. 팬티가 갖고 싶어서 옷가게에 찾아가 보았지만, 다리를 여덟 개나 넣을 수 있는 문어 팬티는 어디에도 없었다. 인터넷을 뒤져도 문어 팬티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아주 멋진 백화점을 발견한다. 딱딱한 따개비들을 위한 방울 모자, 춤추는 뱀장어들을 위한 텍시도와 드레스, 뾰족한 성게들을 겨안을 수 있는 우주복, 물개들의 슬리퍼 양말까지 없는 게 없는 곳이다. 그곳에서 과연 문어는 팬티를 구할 수 있을까? '문어 팬티'는 익숙함 때문에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것을 새롭게 생각해보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상상력과 재미를 더해 줄 수 있는 그림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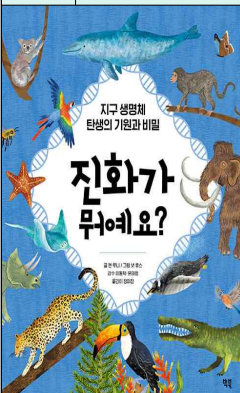
5	유아	사계절 목욕탕	김효정 지음	웅진주니어
	조용하던 숲속에 개구리 소리가 들려온다. 목욕탕 주인 도토리 할아버지가 말한다. “이야, 드디어 봄이 왔구나. 서둘러야겠어.” 얼마 후, 이제 막 겨울잠에서 깬 첫 손님이 찾아온다. 바로 커다란 곰이다. 여름이 되자, 목욕탕에 시원한 물을 가득 채우고 동물들은 물놀이를 한다. 가을이 오자 목욕탕 손님들은 과일을 수확하고 향긋한 물로 목욕을 즐긴다. 겨울이 오고, 도토리 할아버지는 모두 겨울잠을 자는 사이에 드디어 홀로 목욕을 즐긴다. 꽃이 피는 봄,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여름, 형형색색 단풍이 지는 가을 그리고 새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 ‘사계절 목욕탕’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속에서 매일매일 변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려내어 아이들의 흥미를 돋우어주고 자연에 대해 알게 돕는다.			
6	유아	오늘은 진짜 진짜 혼자 잘 거야	홍수영 지음	웅진주니어
	주인공 토끼는 언니들이 이제는 모두 ‘혼자 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제부터 자기도 혼자 자겠다고 말한다. 그 대신, 열까지 세고 잠들 때까지만 엄마가 옆에 있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한다. 다섯까지 셧는데, 갑자기 목이 마르다. 물을 마시고, 토끼는 다시 숫자를 센다. 일곱까지 셧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다.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숫자를 센다. 여덟까지 세고, 갑자기 장난감 친구들이랑 같이 자고 싶어진다. 토끼 인형을 가지고 오고, 아홉까지 세고, 닫힌 문을 무서우니까 조금 열어둔다. 토끼는 언제쯤 열까지 다 셧 수 있을까? 어둠에 대한 무서움, 혼자 잠을 청하는 아이의 불안감을 덜쳐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7	유아	우주 관람차	김성미 지음	책읽는곰
	놀이동산의 우주 관람차가 마지막 운행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 관람차는 엄청나게 크고 멋진 관람차다. 이게 마지막이라니, 사람들은 서운해한다. 이제 관람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해도 한다. 운행이 끝난 그날 밤 관람차는 하늘을 날아 올라 우주로 간다. 우주인들은 관람차를 타며 즐거워한다. 그리고 옛 관람차 자리에는 가상현실 우주관람차 놀이기구가 생긴다. 사람들은 말한다. 옛날에 이 자리에는 커다란 관람차가 있었다고 이 책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안겨 주던 소중한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마음 속에 남아서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그림책이다.			
8	유아	코끼리가 부엌에 나타났대!	스므리티 프라사담 홀스 글; 엘라 옥스테드 그림	에듀앤티크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부엌에 코끼리, 냉장고에는 북극곰, 화장실에 호랑이, 침대에 고릴라가 나타났대! 그 밖에도 수도 없는 동물들이 나타나 집을 차지해 버린다. 동물들이 우리 집에 온 까닭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동물들이 더 이상 살 곳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환경을 보호하고 동물들의 터전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들도 결국 살기 힘들어진다. 우리도 동물들과 함께 같은 지구에서 사는 한 가족이기 때문이다.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버리고 에너지를 낭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환경 보호의 교훈을 담은 그림책이다.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딱딱하지 않게 전달해주는 유쾌함도 함께 갖고 있다.			

9	유아	키오스크	아네테 멜레세 지음	미래아이
	<p>올가는 신문이나 잡지, 복권을 파는 아주 작은 가판대, 키오스크의 주인이다. 키오스크는 올가의 인생이나 다름없다. 하루 종일 키오스크 안에서 보내기 때문이다. 올가는 키오스크 안에서 잠을 자면서 석양이 아름다운 머나먼 바다의 꿈을 꾸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생겨 올가의 키오스크가 땅바닥에서 통째로 들려버린다. 키오스크를 이고 지고 이리저리 걸어 다니다가 물에 빠져 바다까지 흘러가 버린 올가. 작가는 기발한 상상력을 펼쳐 작은 불행을 커다란 행운으로 바꾸어 버린다. 마침내 올가는 평소 마음속으로 그리던 노을이 아름다운 바닷가에 다다르고, 해변의 키오스크에서 아이스크림을 팔며 즐겁게 지낸다. 꿈꾸던 대로 아름다운 석양을 마음껏 바라보면서.</p>			
10	유아	평범한 식빵	종종 지음	그린북
	<p>식빵이는 너무 평범한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울퉁불퉁한 크루아상처럼 근육이 멋지지도 않고, 알록달록 도넛처럼 화려하지도 않아서이다. 속이 짝 찬 단팥빵과 크림빵도 부럽기만 하다. 그때, 식탁 건너편의 샌드위치가 눈에 들어온다. 샌드위치는 식빵이에게 무슨 말을 전해 주었을까?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재능도, 눈에 띄는 개성도 없어 속상한 평범한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이 그림책은 자신의 평범함에 실망하는 아이들에게 ‘평범함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돕는다. 남들처럼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식빵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그대로 식빵으로 남아도 아무 상관 없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식빵이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p>			
1	초등 1-2	기후 위기, 지구가 아파요!	데이비드 웨스트, 올리버 웨스트 지음	지구별어린이
	<p>날씨와 기후는 어떻게 다를까? 지구가 너무 따뜻해지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지구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책은 기후 위기 때문에 아픈 지구를 살펴보고, 아픈 지구를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생각해볼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다. 한 페이지에 두세 문장으로 내용이 간단하고, 중요한 단어가 굵게 표시되어 있어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환경, 기후, 지구온난화 등의 주제에 관심이 있는 아이에게 추천한다.</p>			
2	초등 1-2	마스크 벗어도 돼?	교육을 위한 여성 과학자 모임 글; 마리오나 톨로사 시스테레 그림	그레이트북스
	<p>바이러스는 과연 무서운 존재일까? 사실 바이러스는 어느 곳이나 있고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있다. 하지만 모든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것은 아니고, 모든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책은 우리가 몰랐던 바이러스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바이러스에 대한 막연한 생각과 오해를 풀어준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이와 함께 읽을 만한 책이다.</p>			

3	초등 1-2	블랙홀이 뭐예요?	미네시게 신 글; 구라베 교코 그림	이성과감성
	우리는 블랙홀이라는 단어를 친숙하게 여기지만 한편으로는 잘 알지 못한다. 영화에서, 만화에서 등장하는 블랙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무시무시한 존재지만, 사실 블랙홀은 알고 보면 신비롭고 놀라운 존재이다. 이 책에는 블랙홀이 우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인지, 어떻게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것인지 등등. 그림과 함께 알기 쉽게 블랙홀을 설명한다. 우주, 별, 블랙홀과 같은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4	초등 1-2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에두아르다 리마 지음	봄나무
	세상에 모든 동물이 소리 내지 않는다면 어떨까? 모든 동물이 움직이지 않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새 한 마리의 침묵으로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는 새에 이어 고양이, 개, 곤충들이 순서대로 조용해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간단한 글과 선명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새 한 마리의 침묵이 우리에게 사소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것이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여준다. 동물들의 소리가 모두 사라진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마지막 작은 반전을 통해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책이다.			
5	초등 1-2	쓰레기 괴물	에밀리 S. 스미스 글; 하이드 쿠퍼 스미스 그림	맛있는책
	골칫덩이, 바다 불청객, 쓰레기 괴물. 이 세 단어는 이 책의 주인공을 부르는 말이다. 온갖 쓰레기들이 뭉친 이 괴물은 바다를 돌아다니며 돌고래들에게 시비를 걸기도 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말썽을 부리기도 한다. 마침내 쓰레기는 바다 친구들을 함정에 빠뜨리기도 하는데... 이 위기에서 바다 친구들을 구해준 것은 바로 재활용이다. 왜 일상에서 재활용을 해야하는 지. 그것이 어떤 효과를 불러오는지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 알아갈 수 있는 책이다. 환경, 쓰레기, 재활용에 관심 있는 아이에게 추천한다.			
6	초등 1-2	쓰레기	니콜라스 데이 글; 툼 디스버리 그림	수피아어린이
	보물찾기 대장 실비아는 이곳저곳에 널려 있는 쓰레기들을 모아 엉뚱 발랄한 생각을 한다. 구멍 난 낡은 타이어, 뒤죽박죽 뒤엎킨 밧줄, 버려진 껌 한 통, 쓰레기통 한가득 바나나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느 날, 마을의 수도 탱크가 터지자 놀이터에 있는 모든 것들이 휩쓸려 사라진다. 실비아는 그 순간 나타나 자신이 모아 온 보물들을 이용해 사건을 해결한다. 쓰레기를 이용해 새로운 쓸모를 찾는 실비아를 통해 우리 주변의 쓰레기를 다시 보게 하는 책이다.			
7	초등 1-2	어서와! 장풍아	미소노 지음	책읽는곰
	장수풍뎅이는 크고 멋진 뽕, 단단해 보이는 겉모습으로 많은 아이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책은 장수풍뎅이가 알에서부터 애벌레, 성충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알려준다.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장수풍뎅이의 어린 시절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어 장수풍뎅이의 일생을 상상해볼 수 있게 해준다. 곤충과 자연에 관심이 많은 아이에게 추천하며 이 책을 보며 장수풍뎅이를 직접 키워 보는 것도 추천한다.			



8	초등 1-2	우리는 물이야	이정모 글; 김진혁 그림	아이들은자연이다
	<p>아이는 물을 타고 세상에 나왔고, 물을 마시며 무럭무럭 자란다. 이처럼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이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 책은 사람을 포함해 모든 동물, 식물들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당연하고도 놀라운 사실과 함께, 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책이다. 화학, 물, 생명에 관심을 보이는 아이에게 추천한다.</p>			
9	초등 1-2	조개는 왜 껍데기가 있을까?	리사 스튜어트 글; 세라 S. 브래넌 그림	다섯수레
	<p>바닷가나 갯벌에서, 또는 밥상 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조개. 그런데 조개마다 왜 껍데기의 모양이 다를까? 조개들은 제각기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 환경에 맞게 몸의 일부인 껍데기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어떤 조개는 뾰족한 원뿔 모양이고, 어떤 조개는 둥글고 넓적한 모양이다. 때로는 잠수함처럼, 때로는 드릴처럼, 때로는 날개처럼 사용되는 다양한 껍데기를 가진 조개들에 대해 알아보다 보면 어서 바닷가로 가서 다양한 조개들을 관찰하고 싶어질 것이다.</p>			
10	초등 1-2	지구온난화가 가져온 이상한 휴가	이윤민 글, 이윤민 그림	미세기
	<p>지구가 뜨거워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단순히 여름이 좀 더 더워지고 겨울이 좀 더 따듯해질까? 지구가 뜨거워졌을 때 우리 주변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고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책은 한 가족의 여름휴가를 통해 보여준다. 바짝 마른 계곡, 붉게 물든 바다, 갑자기 몰아치는 태풍까지... 가는 곳마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휴가를 망쳐버리게 된다. 단순히 지구온난화의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지구온난화의 무서움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여름휴가 시즌에 아이와 부모가 함께 읽으면 더욱더 좋은 책이다.</p>			
1	초등 3-4	AI 명심보감	인정림, 강정화 글, 국민지 그림	휴먼어린이
	<p>마음이 어두워질 때 반짝이는 불빛, AI 명심보감!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어렵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고민을 맞닥뜨리는 순간,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다정한 언니, 의젓한 큰형처럼 말을 걸어오는 책상 위의 비밀친구! 옛 성현들의 지혜가 담긴 <명심보감>이 최첨단 AI '명심이'와 '보감이'로 다시 태어나 어린이들의 답답한 고민도 해결해 주고, 따뜻한 마음과 바른 인성을 길러 준다. AI 명심보감이 들려주는 고전의 지혜가 어린이들 스스로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p>			
2	초등 3-4	나는 태극기입니다: 태극기가 들려주는 우리 역사 이야기	임정은 글; 원혜진 그림	그레이트북스
	<p>근현대사 중요한 순간마다 주역으로 등장했던 '태극기'가 화자가 되어 우리 역사 이야기를 들려준다. 일제에 나라를 빼앗겨 항거하는 슬픔의 순간에도, 광복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기쁨의 순간에도 태극기는 늘 함께하며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얼굴과도 같은 태극기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다. 140여 년이라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민족이 다시 뭉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준 태극기를 통해 애국심에 대해 생각해보자.</p>			

3	초등 3-4	동물들의 세계사: 역사를 만든 위대한 50가지 동물 이야기	벤 러월 글; 새라 월시 그림	책과콩나무
		<p>오랜 기간에 걸쳐,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인간과 함께하며 문명을 함께 발전 시켜온 동물들. 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인류에게 중요한 역할이 되었던 그들은 대부분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져왔다. 총알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용감하게 구하고, 장대한 모험을 해 온, 인간이 하지 못하는 탐험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온 동물들의 50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자. 백 년을 앞서 산 동물부터 현재를 사는 동물까지.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우리의 역사를 장식한 숨은 주역들의 놀라운 이야기!</p>		
4	초등 3-4	모두를 위한 집	티보 라싸 지음	원더박스
		<p>딱딱 직각으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된 집에 살면서, 반듯한 벽과 네모난 창으로 된 건물만 짓던 건축가 위젠느. 어느 날 그가 짓던 건물 위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거추장스러운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던 위젠느의 눈에 신기하게도 나무뿐 아니라, 풀과 꽃과 새와 나비와 강아지와 개미와 거미, 동네 사람들 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모두를 위한 집'을 짓게 된 어느 건축가의 상상 초월 건축 프로젝트! 예술 감각과 생태 감수성을 일깨워주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독특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p>		
5	초등 3-4	상자 세상	윤여림 글; 이명하 그림	천개의바람
		<p>‘땡동~ 택배 왔습니다.’ 택배기사님이 집 앞에 두고 간 네모반듯한 상자는 사람의 손에 금세 뜯기고 벗겨진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수거장에서 만난 수많은 상자와 함께 허기를 없애기 위해 이 세상을 먹어 치우기도 하고, 자신이 품었던 물건들을 나열하며 기억놀이를 하기도 한다. 그러다 가장 처음 나무였던 때를 추억해 직접 나무가 되어 보기도 한다.</p> <p>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쇼핑이 더욱더 많아진 요즘, 함께 늘어난 상자를 보며 작가는 재미난 상상의 세상을 보여준다. 짧은 그림책 속에 상자를 통해 환경 문제까지 생각할 수 있게 해, 재미와 교훈을 모두 잡은 알찬 구성의 책이다.</p>		
6	초등 3-4	세계 음식 한입에 털어 넣기	김인혜 글; 조윤주 그림	사계절
		<p>우리가 날마다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음식은 사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지역 사람들의 삶과 생각들을 담고 있다. 지역마다 음식으로 쓰이는 재료는 천차만별이고 같은 재료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 재료를 대하는 자세, 방법 등에 따라 음식의 종류는 무궁무진하다. 이 책 ‘세계 음식 한입에 털어 넣기’를 통해 지구상의 온갖 특이하고 군침 도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자. 책을 읽다 보면 그 속에 담겨있는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에 대한 한 층 더 열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p>		

7	초등 3-4	아기곰이 보내는 편지	문종훈 지음	늘보의 섬
 <p>아기곰이 보내는 편지</p> <p>문종훈 지음</p> <p>비가 잠시 개인 어느 날, 숲 지기 할아버지를 따라 숲속 세상을 만난 아기곰. 숲에서 만난 나무 할머니는 아기곰에게 숲과 대지와 하늘과 바다가 생겨난 이야기를 들려주며 숲을 지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오래된 책을 선물로 준다. 숲과 대지와 하늘과 바다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터전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기곰이 인간 친구들에게 전하는 숲속 동물들의 이야기에 함께 귀 기울여 보자.</p>				
8	초등 3-4	엄마가 봄이었어요	나태주 지음, 더여린 그림	문학세계사
 <p>나태주 창작 동시집</p> <p>엄마가 봄이었어요</p> <p>더여린 그림</p> <p>43년간 초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며 많은 아이를 만나왔던 시인이 어린이의 마음으로 전하는 동시 이야기. 아이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는 가족과 이 세상의 자연물은 각자 고유한 의미를 덧입어 시의 언어로 전해져 온다. 어른과 아이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따스한 동시를 읽으며 가족을 향한 우리의 고운 마음을 다지고 시가 주는 감동을 느껴보도록 하자.</p>				
9	초등 3-4	진화가 뭐예요?: 지구 생명체 탄생의 기원과 비밀	앤 루니 글; 넷 휴스 그림	빅북
 <p>지구 생명체 탄생의 기원과 비밀</p> <p>진화가 뭐예요?</p> <p>앤 루니 글; 넷 휴스 그림</p> <p>지구의 수많은 생명체는 어떻게 지구상의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해왔을까? 이 책은 지구의 오랜 역사와 동물의 진화 과정을 다양한 그림과 읽기 쉽게 배치된 글들로 설명해주는 과학 그림책이다. 인간의 유전자 구조가 상추와 가장 닮았다는 사실, 새가 공룡에서 진화했다는 사실 등 진화의 세계는 배우면 배울수록 신비롭기만 하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가 품고 있는 진화에 관한 궁금증과 지구가 탄생한 이후 수많은 생명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보자.</p>				
10	초등 3-4	코로나 탐구 생활 : 생활 습관에서 지구 환경까지	폴 드 리브롱, 최재천 글 ; 마르그리트 드 리브롱 그림	북멘토
 <p>생활 습관에서 지구 환경까지</p> <p>코로나 탐구 생활</p> <p>폴 드 리브롱, 최재천 글 ; 마르그리트 드 리브롱 그림</p> <p>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집에 갇혀 지내는 동안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 몸 면역 세포는 어떻게 싸우는 걸까? 이웃과 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주변에 코로나에 대한 뉴스나 신문 기사, 책들은 넘쳐나는데 너무 어렵기만 하다면 이 책 ‘코로나 탐구 생활’을 읽어보자. 실제 생활 속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코로나 없는 세상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등등 직접 행동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자.</p>				

1	초등5-6	(움베르토 에코의) 지구를 위한 세 가지 이야기	움베르토 에코 글; 에우제니오 카르미 그림	꿈터
		<p>세계적인 기호학자이자 소설 『장미의 이름』의 작가, 움베르토 에코가 쓴 동화. 《폭탄과 장군》, 《지구인 화성인 우주인》, 《뉴 행성의 난쟁이들》. 세 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평화와 다양성,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저자의 메시지는 분명하고도 단단하게 전달된다. 1966년 처음 출간되어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그의 이야기는 유효하며 커다란 울림과 힘을 지닌다. 더 나은 지구를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탈리아 작가 우제니오 카르미의 삽화 역시 사색을 위한 여백을 제공한다.</p>		
2	초등5-6	13일의 단톡방	방미진 글; 국민지 그림	상상의집
		<p>아이들 사이에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을 현실적으로 그려낸 책. 4학년 민서는 학교 단톡방에서 갑자기 유령 취급을 받으며 따돌림을 당한다. 그 주동자로 단톡방을 드나들며 비밀을 폭로하는 정체불명의 해커, 루킹을 의심하는 민서. 루킹은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민서와 함께 단톡방을 조사하기 시작한다. 저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따돌림에 동참하거나 방관하는 군중심리를 예리하게 포착해 냈다. 실제 톡방과 같은 삽화나 구성은 한층 더 몰입감을 더해, 민서처럼 지옥을 겪고 있을 피해자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미디어 윤리의 출발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p>		
3	초등5-6	고민을 대신 전해 드립니다	김대조 글; 한지선 그림	주니어김영사
		<p>은우는 오공주 멤버였다. 하지만 오공주 리더인 지나에게 밉보여 오공주 자리에서 밀려나게 됐다. 밀려난 은우에게 친절하게 말을 거는 친구 한 명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은우에게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게시판에 대해 알려주는 SNS 메신저 알림이 온다. 우울했던 그에게 게시판은 미소를 되찾아준다. 그러나 점점 '대신 전해드립니다.' 게시판은 익명에 기댄 비방글과 관심을 받기 위한 거짓글로 가득해진다. 심지어 지나에 대한 거짓 비방글이 게시되기 시작한다. 과연 은우와 오공주 멤버들은 거짓 비방글을 작성한 사람을 찾아내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p> <p>다양한 고민을 SNS에 올리면서 일어나는 소동을 그린 이 책은 읽는 아이들이 충분히 겪을 법한 이야기를 다루며,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이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p>		
4	초등5-6	뇌토피아: 우주를 닮은 뇌 속으로 여행을 떠나자	조은수 지음	뜨인돌어린이
		<p>허수아비는 뇌를 갖고 싶다며 뉴런 박사를 찾아간다. 그러나 어떤 뇌를 골라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다. 뉴런 박사는 직접 보고 고르라며 허수아비와 '뇌토피아'를 구석 구석 여행한다. 신나게 뇌토피아 여행을 마친 허수아비는 자신에게 이미 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허수아비는 뇌가 없다고 생각한 이유는 외로움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친구를 찾아 새로운 여행을 떠난다. 뇌토피아에서는 뉴런, 뇌파, 해마 등을 소개하며 실제 우리의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쉽고 재미있게 표현한다.</p>		

5	초등 5-6	뉴스 좀 제대로 알고 싶다고?	강로사 글; 홍연시 그림	개암나무
		<p>제보 상황 발생! 3개월째 친구들을 괴롭히는 자극적인 영상을 찍는 6학년생들이 있다? 윤성이와 리욱이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기자인 이모에게 기사로 내달라고 이야기하다 “직접 뉴스를 만들어 보면 어때냐.”는 말을 듣게 된다. 고민 끝에 친구들을 위해 스스로 기사를 쓰기로 한 두사람. ‘뉴스’의 이모저모를 배워가며 어린이 기자로 거듭난다. 뉴스의 역할,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가짜뉴스, 자극적인 뉴스에 대처 할 수 있는 힘, ‘뉴스 리더러시’에 대한 개념까지. 윤성, 리욱이의 어린이 기자 활약상과 함께 현명한 시민이 되기 위해 알아야 할 뉴스의 기초를 차근차근 알려준다.</p>		
6	초등 5-6	북극곰 고미의 환경 NGO 활동기	박하나 글; 신슬기 그림	중앙출판사
		<p>아빠와 첫 사냥을 나섰지만 사라진 바다표범과 얇아진 얼음에 위험한 경험만 안고 집으로 돌아온 북극곰 고미. 넓은 바다를 바라보던 중, 초록배를 타고 ‘지구가 변해가는 현실을 카메라에 담아 알리고, 사람들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일을 계획한다.’는 ‘캡틴’을 만난다. 고미는 캡틴과 함께 이웃들에게 지구의 일을 알려주고자 색다른 여행에 나선다. 그리고 그 길에서 숲에 도로가 생겨 이사하게 된 호랑이, 쓰레기 바다에 살게 된 고래와 거북이 등 지구의 모든 생명에게 다가오는 위기의 순간을 만난다. 책은 고미의 여행기와 다양한 환경 단체의 활동을 자세히 소개하며, 우리가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도와준다.</p>		
7	초등 5-6	선생님을 팝니다	카레 산토스 글; 안드레스 게레로 그림	베를북
		<p>아이들이 모두 좋아하는 비센테 선생님이 말도 없이 사라지고 세라피나 선생님이 5학년 1반의 담임선생님으로 오신다. 세라피나 선생님은 화를 잘 내시고 쪽지 시험도 자주 본다. 5학년 1반 친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비센테 선생님을 그리워하게 된다. 그러던 중 주인공 오스카와 그의 친구 줄리는 발표수업을 준비하다 비센테 선생님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 이 책에서는 학교와 가정에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입장을 엿볼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게 해준다.</p>		
8	초등 5-6	순례 주택	유은실 지음	비룡소
		<p>‘누가 누가 더 어린가’ 시합이라도 하는 어른들과 달리, 중학생 수림은 자립적이고 생활력이 강하다. 수림이 이렇게 성숙한 아이로 자랄 수 있었던 데에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여자친구인 순례 씨의 너른 품 덕분이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완전하게사가 기운 수림이네 가족은 평소 경멸하던 다세대 주택인 ‘순례 주택’에 얹혀살게 된다. 여전히 철없는 이들의 홀로서기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순례 씨와 수림이의 일련의 소동이 유쾌하고 해학적으로 그려진다. 땀 흘려 벌지 않은 돈을 부끄러워하고 내 인생의 관광객이 아닌 순례자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순례 씨를 보며, ‘진정한 어른이란 어떤 존재일까.’ 곱씹게 된다.</p>		

9	초등5-6	스쿨 오브 뮤직	메이리그 보엔, 레이철 보엔 글; 다니엘 프로스트 그림	길벗어린이
<div>  <div> <p>"왜 음악 학교에 입학해야 할까요?"</p> <p>책을 펼치는 순간 우리는 모두 아주 특별한 음악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음악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3학기, 40강의 수업을 재능있고 유쾌한 음악 선생님들과 함께한다. 과거와 현재의 음악, 신기한 악기, 음악 기호 그리고 작곡하는 법 등등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하지만 낯설기도 한 음악 지식을 어렵지 않고 친절하게 전달해준다. 음악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싶다면 '스쿨 오브 뮤직'에 입학해 마지막까지 책을 읽고 '스쿨 오브 뮤직' 졸업장을 받아보자!</p> </div> </div>				
10	초등5-6	쓸모가 없어졌다	윤미경 글; 조성흠 그림	국민서관
<div>  <div> <p>"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보느냐가 뭐가 중요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p> <p>아침부터 세찬 바람과 천둥소리와 함께 요란한 비가 쏟아지던 날. 소문의 30번 초록 사물함에서 자주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 소문의 30번 사물함은 학생들을 잡아먹는다는 무시무시한 사물함이다. 선생님은 사물함을 열기 위해 열쇠를 가진 ‘쓸모’를 찾지만, 그 날따라 ‘쓸모’는 학교에 오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그날 ‘쓸모’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누구에게도 존재감이 없던 ‘쓸모’,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은 쓸모를 찾아낼 수 있을까? 무시무시한 초록 사물함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p> </div> </div>				